일주문



만공 선사 탄신 138주년 다례 봉행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4월 2일 오전 9시 30분 수덕사 정혜사에서 '만공대선사 탄신 138주년 다례'를 봉행한다. (041)337-6565



불교TV '법화경' 산림대법회

무비 스님은 4월 8일부터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법화경 산림 대법회'를 연다. (02)3270-3300



'승가의범' 출판기념회

동주 스님은 4월 3일 서울 홍원사(주지 자항) 대웅전에서 대은 스님 전집 <승가의범> 출판회를 개최한다. (02)2658-3100



'일연문학학교' 개최

대구 유가사 주지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3월 28일부터 <삼국유사>를 주제로 '일연문학학교'를 개최한다. (053)614-5115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일일찻집

불자가수회 명국환 회장은 3월 28일 불교방송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일일찻집을 연다. (02)713-2905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취임

조유전 前 토지박물관장은 3월 16일 남한산성운영위원장 겸 경기문화재연구원장에 임명됐다.



'그리움을 만지다' 일본 개인전

서양화가 박명순 前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고 교장은 3월 23-28일 일본 도쿄 긴자 문예춘추화랑에서 '그리움을 만지다'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김흥국씨 승가원 방문 봉사

불자가수이자 승가원 홍보대사 김흥국씨는 3월 16일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금강대 박자랑씨 청소년교류 장학생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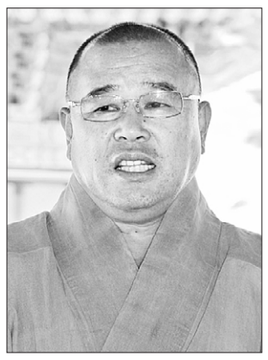


천태종립 금강대 박자랑(통상통역일어전공 3학년)씨는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교류계획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금강대와 학술 · 학생교류 및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일본 메지로(目白)대학의 추천에 의해 결정됐다.

"케이블카 개발 자연재앙의 악과로…"

케이블카 착공 반대하는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서 도립공원위원회의 부당한 절차가 드러난 가운데 조건 협의승인의 당사자인 표충사(주지 재경 · 사진)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월 20일 경남도공원위원회 특별위원이었던 통도사 및 표충사를 도립공원위 회의에 배제한 후 사찰과 합의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밀양시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얼음골 케이블카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인 통도사는 이에 도립공원위에 항의공문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에 재경 스님은 3월 15일 불교기자협의회(회장 안직수)가 표충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비롯한 개발은 반세기도 못가 자연재앙의 악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자평을 비롯한 개발에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와 보존대책 없이 개발이 강행된다면 표충사는 사자평 출입통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 스님은 이어 "사자평 등 가지산 일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천년 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스님들과 불교계의 노력 덕분이었다. 삼보정재가 훼손되는 것을 표충사를 비롯한 불교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을 억새로 유명한 사자평은 재약산 평원지대로 표충사는 사자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재경 스님은 "정부는 성급한 개발에 앞서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성을 갖고 거시적인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부처님 인과법을 명심해야 할 때"라며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본지를 비롯한 불교신문 등 불기협 회원사 일동은 이날 표충사에서 '수행 환경 · 자연 경관 훼손하는 케이블카 설치 중단'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불교계 의견을 배제한 밀양시 등 정부당국을 규탄했다. 노덕현 기자

'소설 열반경' 연재

정찬주씨 동국미디어센터에서



소설가 황석영의 '개밥바라기'와 박범신의 '촐라체'는 인터넷 소설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인터넷 공간에는 소설뿐 아니라 시와 시조 수필 등 문학의 모든 장르가 카페나 블로그, 혹은 전문 사이트를 통해 활성화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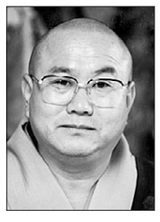
본지에 '가야산 정진불'을 연재 중인 소설가 정찬주(사진)씨가 모교인 동국대가 운영하는 동국미디어센터(www.donggukin.org)에 '소설 열반경'을 연재한다. 격주 단위로 향후 40회 가량 연재 할 예정인 소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의 상황들을 통해 불교의 참 모습을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사진작가 유동영씨가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 등 성지를 다니며 촬영한 사진도 함께 실린다.

인도기행을 4차례 한 정찬주씨는 "부처님의 열반 성지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다"며 "소설을 통해 부처님의 열반 상황과 거기에 깃든 불교적 의미 등을 깊이 조명해 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소설은 웹진을 통해서 매주 20만 동문들에게 발송된다. 동국미디어센터는 2007년 동대신문 교육방송국 영자신문 대학원신문 등을 통합해 발족됐으며 포털 사이트 동국인도 운영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외부인사 첫 임명 '파격'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3월 16일자로 법타 스님(前 은해사 주지 · 사진)을 정각원장에 임명했다.

법타 스님은 1946년 충남 청주에서 출생해 1974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클레이튼 대학에서 '북한불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스님으로는 처음 1989년 방북한 이래 남북불교교류사업에 앞장서왔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한 후 회장 등을 역임하며 종교를 초월한 통일운동을 주도해 왔다.

법타 스님은 2000년과 2007년 각각 조계종 10 · 27 법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조계종 동국대학교 로스쿨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동국대의 법타 스님 임명은 교내 교수들의 보직이었던 정각원장을 외부에 개방했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다. 조동섭 기자

진주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배명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경남 진해시는 3월 16일 제20회 진주시민대상 수상자로 배명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사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해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시민상 정립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배명인 이사는 인재육성을 위한 후진양성 활동 및 모교 동창회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 이사는 1932년 태어나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연수원 원장, 제33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대한불교진흥원 이사를 맡고 있는 배 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 변호사와 BBS불교방송 이사도 겸하고 있다. 시상식은 4월 3일 열리는 진해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은해사 육군 3사생도 사찰체험 수계법회



경북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경내에서 3월 15일 육군 3사관학교 법무 74기 생도 사찰체험 및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21명의 군법무관 후보 생도들은 돈관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고 군불교 진흥을 다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선옥 박사 '선무 색즉시공 2009' 공연



전통무용가 이선옥 박사(뉴욕대)는 3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주최한 '선무 색즉시공 2009'를 시연했다. 전국비구니회장명성 스님 등 400여 명이 관람했다. 노덕현 기자

내장사 중앙재난안전 종합훈련 실시



3월 17일 정읍 내장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행안부 장관,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했고, 특수 소방차 등 80여 장비와 소방대원 1000여명이 동원됐다. 노덕현 기자

명락사 창립 34주년 기념법회 봉행



천태종 서울명락사(주지 무원 · 천태종 총무부장)는 3월 15일 창립 3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무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 종도가 일심단결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정진하자"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일붕선교종 제7대 종회의장 이 · 취임법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3월 18일 서울 킴스호텔에서 '제7대 중앙종회의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회의장 경원 스님(호불사 주지)은 "봉사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